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념

강원 2024 문화예술공연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

2024.01.20-01.31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GROW
TOGETHER
SHINE
FOREVER

@GANGWON2024



GANGWON2024.COM



CONTENTS

2024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 <소망과 꿈을 모아서>	.. 4
<hr/>	
2024.01.20 ^{SAT} 3PM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강릉문화원	
HIP합	.. 7
<hr/>	
2024.01.23 ^{TUE} 7:30PM	
국립현대무용단	
The New Year, New Energy & New Generation	.. 10
<hr/>	
2024.01.25 ^{THU} 7:30PM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흥겨운 합창여행	.. 13
<hr/>	
2024.01.26 ^{FRI} 7:30PM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 16
<hr/>	
2024.01.27 ^{SAT} 5PM	
국립오페라단	
전통무용 & 전통연희	.. 19
<hr/>	
2024.01.29 ^{MON} 7:30PM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해적	.. 22
<hr/>	
2024.01.31 ^{WED} 7:30PM	
국립발레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념

강원 2024 문화예술공연

2024년 1월 20일 (토) ~ 1월 31일 (수)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공연 일정

- | | |
|-------------------------|--|
| 1월 20일 (토)
오후 3시 | 2024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 <소망과 꿈을 모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강릉문화원 |
| 1월 23일 (화)
오후 7시 30분 | HIP 습
국립현대무용단 |
| 1월 25일 (목)
오후 7시 30분 | The New Year, New Energy & New Generation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
| 1월 26일 (금)
오후 7시 30분 | 흥겨운 합창여행
국립합창단 |
| 1월 27일 (토)
오후 5시 |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국립오페라단 |
| 1월 29일 (월)
오후 7시 30분 | 전통무용 & 전통연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
| 1월 31일 (수)
오후 7시 30분 |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해적
국립발레단 |

전시 일정

- 1월 19일 (금) ~ 2월 1일 (목) **함께 할때 빛나는 우리-아르브뤼 특별전**
아르브뤼코리아 사회적협동조합 | 강릉아트센터 제1전시실

2024 Venez Illuminer Artpara!
(사) 장애인과오대륙친구들 | 강릉아트센터 제2,3전시실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

문화예술공연 일정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2024.1.19.~ 2.1.)기간 중 개최국 및 세계 청소년과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동있는 공연과 국내외 장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특별전시가 진행됩니다.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가들이 이끄는 7개 공연단의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지며, 2곳의 전시관에서는 2개 단체에서 준비한 장애인 작가 작품이 전시됩니다. 평창돔과 강릉 관동대 아이스 하키센터에서는 K-콘텐츠를 대표하는 K-POP 콘서트와 K-Culture 페스티벌을 통해 강원 문화예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2024.01.20 SAT 3PM

2024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 <소망과 꿈을 모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강릉문화원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과 ‘강릉 엔젤스 중창단’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아동·청소년들의 소망과 꿈을 모은 음악으로 하나되는 자리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의 아름다운 선율과 ‘강릉 엔젤스 중창단’의 빛나는 하모니로 함께하는 협동정신과 화합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2024.01.25 THU 7:30PM

The New Year, New Energy & New Generation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신년’을 알리는 대표적인 클래식 작품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과 동계올림픽 종목 중 하나인 스케이팅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인 발퇴펠의 스케이터 왈츠로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청소년올림픽대회에 초점을 맞추어, 클래식 음악 부문 차세대 바이올린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는 김서현과의 협연으로 바이올린 협주 작품 비에니아프스키의 구노의 ‘파우스트’ 주제에 의한 화려한 환상곡, Op. 20이 연주되며 마지막으로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을 연주하며, 다양한 국가의 춤곡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리듬과 색채의 음악으로 공연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2024.01.23 TUE 7:30PM

HIP합

국립현대무용단



장르 간 컬래버레이션을 주제로 한 국립현대무용단의 기획 프로그램 HIP합에서는 스트리트 댄스, 국악 그리고 현대무용의 에너지 넘치는 협업으로 호평받은 이경은 안무가의 <브레이킹>과 탁월한 오브제 활용과 파워풀한 움직임을 담은 정철인 안무가의 <비보호>, 두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4.01.26 FRI 7:30PM

흥겨운 합창여행

국립합창단



한국가곡에서부터 팝송, 오페라,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합창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국립합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에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이 더해진 <흥겨운 합창여행>을 선보입니다. 1월 26일, 강릉의 밤하늘을 수놓을 아름다운 음악을 기대해주세요.

2024.01.27 SAT 5PM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국립오페라단



2024년 갑진년 새해와 함께 강릉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축하 하고자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을 무대에 올립니다. 1부는 새해를 기분 좋게 열기 좋은 신나는 왈츠풍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을 시작으로 프란츠 레하르의 <미소의 나라>, <유쾌한 미망인> 3개의 오페레타 작품의 주요 아리아와 듀엣을, 2부는 관객들에게 친숙한 유명 오페라 아리아들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4.01.29 MON 7:30PM

전통무용 & 전통연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 전통예술의 정수를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양손에 부채를 들고 그려내는 부드러운 곡선과 음악의 조화가 매력적인 부채춤, 도당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행했던 경기 도당굿,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뜻을 담은 태평무 등 한국적인 정서가 깊게 묻어나는 독특한 무대는 가장 한국적인 동시에 가장 세계적인 K-컬처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2024.01.31 WED 7:30PM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해적

국립발레단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 <해적>을 ‘마젠토스의 왕’의 해설과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작품입니다. 해적 두목 콘라드와 메도라의 사랑, 해적단에 대한 비르반토의 배신, 콘라드와 알리 사이의 신의와 우애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국립발레단의 <해적>은 2020년 솔리스트 송정빈이 재안무한 버전으로 역동적인 군무와 화려한 테크닉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

Exhibition

2024.01.19 FRI ~ 02.01 THU 강릉아트센터 제1전시실

함께 할 때 빛나는 우리-아르브뤼특별전

아르브뤼코리아 사회적협동조합



아르브뤼(Art brut)는 발달장애를 지닌 작가들의 작가정신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작가들이 예술 분야에서 배어난 소질을 발휘하고 그 가운데서도 미술작가의 활동은 두드러집니다. 오프닝으로 첼리스트 송희송 단장이 이끄는 솔리스트푸르니에 첼로앙상블 공연과 아르브뤼작가 20명과 장애 어린이 10명, 자립준비청년 및 아동양육시설보호아동 14명의 작품과 배우이자 작가인 윤송아 작가의 작품 등 120여 점이 전시 됩니다. 전시기간 중 작가와 함께하는 캐리커처 그리기, 사파리 만들기, 목판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4.01.19 FRI ~ 02.01 THU 강릉아트센터 제2,3전시실

2024 Venez Illuminer Artpara!

(사)장애인과오대륙친구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청소년들이 스포츠로 하나 되듯이 세계 청소년 발달장애화들이 그림으로 하나 되는 ‘아트 올림픽 프로젝트’로 이 전시가 특별한 이유는 다섯 개의 대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온 100점 작품들이 모여 전시되고, 김근태 화백의 100m 회화작품과 영상미디어 작품이 더해져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아트 프로젝트’로 비상할 것입니다.

1.20 SAT
3PM

2024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 <소망과 꿈을 모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강릉문화원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과 ‘강릉 엔젤스 중창단’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아동·청소년들의 소망과 꿈을 모아 음악으로 하나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의 아름다운 선율과 강릉 엔젤스 중창단의 빛나는 하모니로 함께하는 협동정신과 화합의 모습을 구현해내고자 합니다.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

PROGRAM

존 윌리엄스

John Williams

올림픽 정신

The Olympic Spirit

요한 슈트라우스 2세

Johann Strauss II

푸른 도나우강 왈츠

The Blue Danube Walts

히사이시 조

Hisaishi Joe

바다가 보이는 마을

A Town With An Ocean View

르로이 앤더슨

Leroy Anderson

썰매타기

Sleigh Ride

조르주 비제

Georges Bizet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제2번 중 파랑돌

L'Arlesienne Suite No. 2 - Farandole

한용희

우리가 만드는 세상 (파란 마음, 하얀 마음)

- 합창 강릉 엔젤스 중창단

제이레빗

Happy Things

- 합창 강릉 엔젤스 중창단

윤일상

내가 바라는 세상

- 합창 강릉 엔젤스 중창단

박학기

아름다운 세상

- 합창 강릉 엔젤스 중창단

신해철

그대에게

- 합창 강릉 엔젤스 중창단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

PROFILES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

강릉문화원(원장 김화목)이 운영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은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서 강릉지역 거점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올해로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단원들은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인정을 경험하고 배려와 나눔의 실천하며 ‘조화로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단원들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회적배려계층아동 60% 포함하여 총80여명의 단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으로는 한우람 음악감독을 비롯해 14명의 각 파트별 강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합주 및 파트교육, 특별체험활동을 통해 단원들의 음악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봉사나눔 공연, 지역 내 단체와의 협연, 각종 연주회를 통해서 단원들의 자신감 향상과 지역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강릉 엔젤스 중창단

아름다운 화음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아이들

강릉 어린이들이 ‘문화 예향의 도시’ 강릉에 어울리는 동요를 통해 평소 갖고 닦은 음악적 재능의 기부로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자 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조그만 불빛들이 모여, 나만이 아닌 우리를 만나 환한 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음악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가가 모든 종류의 병을 치유 한다’고 미국의 시인 애머슨은 말했습니다. 저희 강릉엔젤스 중창단은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먼저 다가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선율을 통해 진정한 하나 됨을 이루고자 합니다. 저희 강릉엔젤스 중창단은 희망을 노래하는 중창단으로 우리 지역이 문화예술의 도시 강릉이 되는 중추적 역할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

1.23 THU 7:30PM

HIP합

국립현대무용단

장르 간 콜라보레이션을 주제로 한 국립현대무용단의 기획 프로그램 <HIP합>에서 스트리트 댄스, 국악 그리고 현대무용의 에너지 넘치는 협업으로 호평을 받은 이경은 안무가의 <브레이킹>과 탁월한 오브제 활용과 파워풀한 움직임으로 담은 정철인 안무가의 <비보호>, 두 작품을 선보입니다.

PROGRAM



브레이킹 | 안무 이경은

B급들이 만들어낸 A급 세상.

정해진 시스템과 한계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리듬과 개성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어보자. 상상하고 놀이하며 세상을 재구성하는 개인의 모습을 무대에 소환한다. 태풍의 눈이 되어 세상을 으깨고 뒤섞는 '나'들의 향연을 '브레이킹(BreAking)'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악 기반 포스트 록밴드 '잠비나이'의 멤버 이일우가 함께하며, 현대무용 씬에서 활약 중인 다섯 명의 무용수와 스트릿 우먼 파이터 시즌2에서 활약한 BabySleek 등 스트리트 댄서 세명이 객석을 무아 지경으로 몰아간다.



비보호 | 안무 정철인

탁월한 오브제 활용과 파워풀한 움직임으로 주제의식을 풀어내는 안무가 정철인은 힙합 문화의 속성 중 '해체와 자율, 경계 허물기'를 집중 탐구한다. 작품을 통해 인간이 현대의 규칙을 해체하고자 하는 시도가 어떠한 경계를 허물 수 있는지를 실험해보며, 독특한 행위와 반항적인 사고가 어떠한 새로움으로 발견될 수 있는지 논할 예정이다. 무대에서는 안무가가 영감을 얻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규칙 중, 길 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해프닝들을 바탕으로 위험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들을 움직임으로 풀어낸다.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

PROFILES



브레이킹
안무
이경은

독창적인 안무 발상과 폭발적인 무대 매너로 국제무대를 활보하고 있는 안무가 이경은. 1996년 데뷔작 <흔들리는 마음>으로 '신인상'을 거머쥐며 '대한민국 무용계의 새로운 이단아'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후 2003년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무용 분야 최고를 꼽는 설문'에서도 당시 29세의 나이로 '가장 유망한 차세대 안무가'로 선정된 바 있다. 2002년부터 20년째 리케이댄스 예술감독으로서 일상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60분 넘는 대작들을 통해 안무력을 인정받아 1996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저명한 무용상을 휩쓴 걸출한 안무가이다.

출연	Drop BabySleek Ko-c 정범관 김미리 김영은 김현주 박준영
라이브 연주	이일우 이충우 이 준
음악	이일우
의상	배경술
무대디자인	도현진
드라마투르그	안경모
조명디자인	류백희



비보호
안무
정철인

멜랑콜리 댄스컴퍼니의 대표인 정철인은 2014년 작품 <자유낙하>를 시작으로, <비행>(2016), <0g>(2018), <초인>(2019), <당신의 징후>(2021), <모빌리티>(2021) 등 왕성한 창작활동을 선보이며 무용계로부터 안무적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신체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움직임과 표현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객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며 성실하고 진지하게 무용수, 그리고 안무가로서의 창작세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출연	정철인 김윤현 류지수 문경재 이대호 임현준 주영상
보드 출연자	UZ
음악	최태현
의상	임선열
무대디자인	남경식
조명디자인	김재억
무대감독	이도엽
음향감독	정새롭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

PROFILES



국립현대무용단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국립현대무용단은 2010년 창단한 국내 유일의 국립 현대무용단체다. 창작역량을 지닌 예술가들과 함께 춤을 통해 동시대의 역사와 사회,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역과 세대를 아울러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한국적 컨템퍼러리 댄스를 지향한다. 1대 예술감독 홍승엽, 2대 안애순, 3대 안성수, 4대 남정호에 이어 2023년 5월 김성용 안무가가 제5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했다.

국립현대무용단은 예술감독과 무용수들이 구심점이 되어 선보이는 무대를 통해 무용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여러 지역과 해외의 다양한 국가들에 국립현대무용단의 고유한 색채를 선보이고자 한다.

국립현대무용단은 창작전문단체로서 동시대 다양한 가치를 무용 작품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고유한 예술관을 가진 안무가를 초청하고, 각 작품에 최적화된 프로젝트 무용수를 선발하여 공연을 올리고 있다. 또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무용단의 안정된 시스템에서 자유롭게 개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현대무용단은 창작자와 관객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창작자와 관객이 만나는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춤을 가깝게 경험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현대무용을 통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모한다.

1.25^{THU}
7:30PM

THE NEW YEAR, NEW ENERGY & NEW GENERATION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신년’을 알리는 대표적인 클래식 작품인 슈트라우스 2세 <박쥐> 서곡과 동계올림픽 종목 중 하나인 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인 발퇴펠의 스케이터 왈츠로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어 화려한 음악과 드라마틱한 전개로 귀와 눈을 모두 사로잡는 대표적인 바이올린 협주 작품인 비에니아프스키의 구노의 ‘파우스트’ 주제에 의한 화려한 환상곡, Op. 20을 연주합니다. 이 작품은 청소년올림픽대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클래식 음악 부문에서 차세대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과의 협연으로 선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클래식 작품의 대명사 중 하나로 청중들에게도 친숙한 작품인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을 연주하며, 다양한 국가의 춤곡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리듬과 색채의 음악으로 공연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

PROGRAM

요한 슈트라우스 2세
Johann Strauss II

오페레타 <박쥐> 서곡
Operetta <Die Fledermaus> Overture

에밀 발퇴펠
Emile Waldteufel

스케이터 왈츠, Op. 183
The Skater's Waltz, Op. 183

헨리크 비에니아프스키
Henryk Wieniawski

구노의 '파우스트' 주제에 의한 화려한 환상곡, Op. 20
Fantaisie brillante on themes from Gounod's "Faust,"
for Violin and Orchestra, Op. 20

- 협연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Pyotr Il'yich Tchaikovsky

발레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Op. 71a
Nutcracker, suite from the ballet, Op. 71a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

PROFILES



지휘 차웅 Woong Cha

브람스 콩쿠르, 말러 콩쿠르와 함께 세계 최고 권위의 지휘 경연으로 손꼽히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동양인 유일, 한국인 최초로 우승(1위없는 2위)한 지휘자 차웅은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현재 가장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는 지휘자이다.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개최된 제10회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국제 지휘 콩쿠르에는 총 34개국에서 159명의 지휘자가 참가하였으며,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 또한 이 콩쿠르의 우승자로 유명하다. 우승 이후 차웅은 이탈리아 루치아노 파바로티 극장과 니콜로 파가니니 극장 등에서 지휘하며 수많은 오케스트라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차웅은 일찍이 한국지휘자 협회로부터 우수 신예지휘자로 선정되어 수원시립교향악단을 지휘했으며, 이탈리아 트렌토에서 개최된 제11회 안토니오 페드로티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는 단 17명만을 초대하는 결선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진출하여 화제가 되었다. 국내에서 서울시향, 수원시향,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다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였으며 헝가리 사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다페스트 MAV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였다. 서울시향의 퇴근길 토크콘서트 전담 지휘를 비롯해 3.1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을 지휘하여 음반으로 취입하였고 서울시립합창단과 23년 만에 새로 녹음하는 대한민국 공식 애국가를 지휘했다. 2021년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의 피날레와 11시 콘서트 지휘를 비롯하여 2021년 대관령겨울음악제의 폐막공연과 평창대관령음악제에 초청되어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지휘과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악대학에서 석사과정 및 최고 연주자과정을 심사위원 만장일치 최고점수로 졸업한 차웅은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 Seohyun Kim

2023년 티보르 버르거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2022년 토머스 앤 이본 쿠퍼 국제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은 2021년 이자이 국제 음악 콩쿠르, 레오니드 코간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와 베를린 라이징스타 그랑프리 국제 음악 콩쿠르 주니어 부문에서 연이어 우승하며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는 신예로 이름을 알렸다.

일찍이 성정음악콩쿠르, 음악저널콩쿠르, 음악춘추콩쿠르, KCO음악콩쿠르, 예원음악콩쿠르, 대전국제음악콩쿠르 등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김서현은 2022년 제1회 권혁주 음악 콩쿠르 주니어 부문 대상에 올랐다. 김서현은 2020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 후 2023년 금호영재오프닝콘서트 무대에 초청 받았으며, 엘림아트센터 초청 선데이 콘서트 및 영아티스트 콘서트 시리즈 독주회, 곤지암 뮤직 페스티벌 'Night of Rising Stars'에서 연주를 펼친 바 있다. 또한 지휘자 길버트 버르거의 초청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리스트 아카데미 및 페치 코달리 센터에서 패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티보르 버르거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을 가졌고, 게르하르트 치머만 지휘로 칸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에 올랐으며 서울시립 교향악단, 전주시립교향악단, 목포시립교향악단 등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은 예원학교 수석 입학 후 현재 3학년으로 서울중앙음악학원에서 이선이를 사사하고 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Korean National Symphony Orchestra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5년 국내 최초의 민간 교향악단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로 출발해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지정되며 관현악·발레·오페라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극장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했다. 폭넓은 레퍼토리로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한 가운데 신한류 흐름 속 국립예술단체로서 차세대 음악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하며 2022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로 재탄생, 대한민국 교향악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연 100여 회 이상의 연주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영화부터 게임, 온라인 공연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클래식 저변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국내 오케스트라 중 첫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진출과 4K 영상과 3차원 다면 입체 음향 녹음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아카이빙을 통해 새로운 감상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핵심인 '연주자·작곡·지휘' 세 분야의 미래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문 오케스트라 연주자를 교육하는 'KNSO국제아카데미', 작곡가 육성을 위한 'KNSO 작곡가 아틀리에', 전 세계를 무대로 차세대 지휘자를 발굴하는 'KNSO국제지휘콩쿠르'와 'KNSO 지휘자 워크숍' 등 K-클래식을 이끌어갈 차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며 클래식 음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꾼다.

1.26 FRI
7:30PM

흥겨운 합창여행

국립합창단

국립합창단은 합창을 뛰어넘는 화합을, 최고의 감동으로 세계에 노래합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축하하기 위한 이번 공연에는 한국가곡에서부터 팝송, 오페라,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합창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국립합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에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이 더해진 <흥겨운 합창여행>을 선보입니다. 1월 26일, 강릉의 밤하늘을 수놓을 아름다운 음악을 기대해주세요.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

PROGRAM

조혜영

못잊어

조혜영(편곡)

세노야

우효원

여기영차

빅터 영

Victor Young

When I fall in love

줄리 골드

Julie Gold

From a distance

주세페 베르디

G. Verdi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中 “대장간의 합창”

“Coro di Zingari” from Opera <Il trovatore>

주세페 베르디

G. Verdi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中 “축배의 노래”

“Brindisi” from Opera <La Traviata>

주세페 베르디

G. Verdi

오페라 <투란도트> 中 “아무도 잠들지 말라”

“Nessun dorma” from Opera <Turandot>

프랭크 와일드혼

Frank Wildhorn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모음곡

PROFILES



국립합창단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국립합창단은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 추구를 위해 1973년에 창단된 전문합창단으로 본격적인 합창 예술운동의 선두주자이자 합창음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해왔다.

2000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독립, 재단법인으로 재발족하여 매년 4회의 정기연주회와 60여 회의 기획공연, 지역공연, 해외공연, 외부출연, 공공행사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불리는 헨델, 바흐, 하이든, 멘델스존, 브람스, 칼 오르프 등 세계적인 작곡가의 합창작품을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한 국립합창단은 합창음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한국 창작 합창곡 개발과 보급, 한국적 특성과 정감을 표출하는 창법, 해석법의 정립 등에 앞장서며 한국 합창음악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립합창단 단원

- 소프라노

장영숙 박미자 진지영 조윤정 정경임 신영미 김은정 이정미 박송이 이은보라 김경하
신연정 김명희 박준원
- 알토

김미경 조연선 김옥선 최윤정 박정민 강문선 박혜연 유송이 사이안 이도희 김해인
- 테너

조정환 윤인하 원종윤 김영욱 문형근 최성철 김종갑 박의준 최정현 오영인 이재엽
- 베이스

김문섭 강명원 주호남 길은배 차광환 박동석 조대현 유지훈 정태준 함신규
- 반주자

서미경 김민환

사무국 Staff

- 사무국장

국동남
- 경영지원팀

(팀장) 한상욱 (차장) 신현철 (팀원) 박세진
- 공연사업팀

(팀장) 이성균 (과장) 허보연 (팀원) 유세현 최용림
- 기획홍보팀

(팀장) 조화영 (과장) 강세미 (팀원) 김유리

1.27 SAT
5PM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

국립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은 2024년 갑진년 새해와 함께 강릉에서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축하하고자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여행>을 선보입니다.

1부는 새해를 기분 좋게 열기 좋은 신나는 왈츠풍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을 시작으로 프란츠 레하르의 <미소의 나라>, <유쾌한 미망인> 3개의 오페레타 작품의 주요 아리아와 듀엣을 선보입니다. 2부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의 개선행진곡을 시작으로 관객들에게 친숙한 유명 오페라 아리아들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립오페라단 Korea National Opera

국립오페라단(1962년 창단 / 2000년 재단법인 독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오페라단으로서 국내 오페라 발전을 선도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오페라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오페라 최고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오페라를 만들기 위해 국립오페라단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국내 성악가와 무대 관련 스태프를 발굴 및 양성하는 등 한국 문화예술계의 모태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 한다.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출연자 선정을 위해 정기적인 오디션을 개최하여, 공신력을 갖춘 국립예술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공연되지만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시리즈로 기획,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해외 우수 극장과의 공동제작 및 교환공연을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오페라를 제작, 우수 레퍼토리를 확보하고 세계적인 예술가와 콘텐츠를 한데 모으는 글로벌 오페라 허브로 발돋움해갈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다가가는 오페라단이 되기 위해 국립오페라단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확산에 힘쓰고 있다. 전국적으로 풍요로운 오페라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고, 해당 지역 교육프로그램 확충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오페라가 자주 개최되기 힘든 지방 중소도시 및 도서산간지역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등 문화확산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제작 여건이 열악한 지역극장 및 민간단체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제작역량을 끌어올리고,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 문화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문화예술 생태계 형성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

PROGRAM

1부 OPERETTA

요한 슈트라우스 2세 Johann Strauss II	박쥐 Die Fledermaus 서곡 Overture ... 강릉시립교향악단 존경하는 후작님께 Mein Herr Marquis ... Sop. 안혜수 누구에게나 취향은 있지 Chacun à son goût ... M.Sop. 신성희 난 순진한 시골처녀를 연기하죠 Spiel ich die Unschuld vom Lande ... Sop. 김유진
프란츠 레하르 Franz Lehár	미소의 나라 Das Land des Lächelns 그대는 나의 모든 것 Dein ist mein ganzes Herz ... Ten. 구태환
프란츠 레하르 Franz Lehár	유쾌한 미망인 Die Lustige Witwe 조국이며 그대는 매일같이 - 난 막심으로 가네 ... Bar. 박은원 O Vaterland du machst bei Tag - Da geh ich zu Maxim 요정 빌랴가 살았다네 (빌랴의 노래) Es lebt eine Vilja (Vilja Lied) ... Sop. 김현정 입술은 침묵을 지키고 Lippen schweigen ... Sop. 김현정 Bar. 이천초

2부 OPERA

주세페 베르디 Giuseppe Verdi	아이다 Aida 개선행진곡 Triumphal March ... 강릉시립교향악단
조아키노 로시니 Gioacchino Rossini	세비야의 이발사 Il Barbiere Di Siviglia 나는 이 거리에 만물박사 Largo al factotum della citta ... Bar. 박은원 방금 들린 그대의 음성 Una voce poco fa ... Sop. 안혜수
가에타노 도니제티 Gaetano Donizetti	돈 파스칼레 Don Pasquale 기사의 뜨거운 눈길 Quel quando il cavaliere ... Sop. 김유진
조르주 비제 Georges Bizet	카르멘 Carmen 하바네라 Habanera ... M.Sop. 신성희 투우사의 노래 Les Toreadors ... Bar. 이천초
오토 니콜라이 Otto Nicolai	원저의 유쾌한 아낙네들 Die Lustigen Weiber von Windsor 이제 서둘러요 이곳으로 Nun eilt herbei... ... Sop. 김현정
자코모 푸치니 Giacomo Puccini	투란도트 Turandot 아무도 잠들지 못한다 Nessun dorma ... Ten. 구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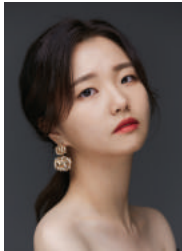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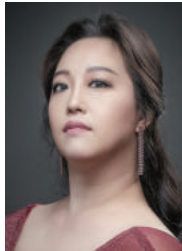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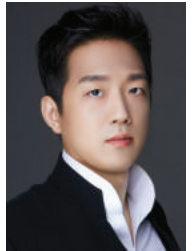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

PROFILES

지휘
김광현

장르를 가리지 않는 독보적인 활약으로 많은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휘자 김광현은 KBS 교향악단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국·공립 교향악단과 외국의 다수 교향악단을 지휘하였다. 특히 국공립 음악단체의 수장으로는 최연소로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하여 만 7년간 재임하면서 객석점유율과 정기회원 수를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며,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에서 연이은 성공적인 연주로 지방 교향악단으로서는 보기 드문 유료관객점유율을 기록, 원주시립교향악단을 일약 국내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로 도약시키며 대한민국 교향악 운동의 모범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활약은 교향악 뿐 아니라 오페라, 발레 등 무대음악 분야에서도 두드러진다. 서울대학교 60주년 기념 정기오페라 <돈 지오반니>를 학부 재학생 최초로 지휘한 이후 한국과 독일에서 15편이 넘는 오페라와 다수의 발레 작품을 지휘하여 관객과 평론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예원학교 피아노과와 서울예고 작곡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지휘를 전공하여 임헌정과 김덕기를 사사했다. 이후 독일로 유학하여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지휘과 석사과정을 졸업하였고, 정명훈, 헤름헤르트 블루슈테트, 샤를 뒤트와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의 마스터클래스에 선발되어 사사받은 바 있다.

출 연

소프라노
김유진소프라노
김현정소프라노
안혜수메조 소프라노
신성희테너
구태환바리톤
박은원바리톤
이천초

강릉시립교향악단 Gangneung Philharmonic Orchestra

강릉시립교향악단은 강원도 영동권의 대표되는 교향악단으로 1992년 9월 창단·운영되어 왔으며, 1999년 5월 강릉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을 위해 전 단원을 상임으로 재 창단하였으며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관현악 세계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탁월한 곡 해석으로 한국 음악사에 한 획을 그고 있는 기획연주회, 문화적 혜택이 미약한 읍·면·동 주민을 찾아가는 음악회,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음악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 탐방연주회와 청소년 음악교실, 아마추어 성악가를 위한 솔향가곡제, 커피축제를 찾는 이들을 위한 축제음악회, 병원과 양로원 등 사랑의 음악회를 비롯하여 대관령국제음악제, 감자콘서트 등 연간 60여 회에 이르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으로 막을내린 2018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올림픽 기념음악회, 바이탈 콘서트 등 다양한 음악회를 열었다. 베토벤교향곡 전곡 연주회를 비롯하여, 국내정상급 연주자들과의 협연으로 수준높은 연주를 해왔으며, 특히 교향악축제와 부산마루국제 음악제에 초청되어 호평을 받았고 2023년에는 오사카 심포니홀과 도쿄 산토리홀에서 일본투어연주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휘자와 전단원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독특한 연습환경 속에서 앙상블 매뉴얼을 공유하여 강릉시향 고유의 하모니 색깔을 만들어가며 한국의 오케스트라 발전에 새로운 방향과 길을 제시하고 있어 음악인은 물론 많은 애호가들이 강릉시향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해 가고 있다.

1.29 MON 7:30PM

전통무용 & 전통연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기념하여 한국 전통예술의 정수를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양손에 부채를 들고 그려내는 부드러운 곡선과 음양의 조화가 매력적인 부채춤, 도당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행했던 경기 도당굿,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뜻을 담은 태평무 등 한국적인 정서가 깊게 묻어나는 독특한 무대는 가장 한국적인 동시에 가장 세계적인 K-컬처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PROGRAM



팽과리 조민우
징 김산
장구 김희수
북 권진우
징·바라 김관형
바라지 이진우
피리·태평소 주재형



삼도무속

경기도도당굿은 경기도 일대의 한강 이남 지역에 전해져 오는 마을굿으로, 대동굿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굿은 도당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감사 또는 기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행한다.

대개 정월이나 10월 또는 봄철에 진행한다. 경기도도당굿은 돌돌이, 부정굿, 도당모시기, 시루말, 제석굿, 터벌림, 손님굿, 군웅굿, 뒷전 등의 주요한 굿거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해안굿은 동해안 지역에서 행해지는 굿을 일컫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동해안 별신굿과 오구굿이 있다. 별신굿은 강원도 고성군에서부터 부산까지 동해안지역 일대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는 마을굿이다. 마을의 수호신인 골매기신을 모시고 마을의 평화와 안녕, 풍요와 다산, 배를 타는 선원들의 안전을 빌기 위해 특정한 시기에 무당들을 청해서 진행하는 대규모의 굿이다. 풍어제, 풍어굿, 골매기당제라고도 하며, 지역에 따라서 1년 또는 2~3년 길게는 10년에 한 번씩 열린다. 또한 오구굿은 죽은 망령(亡靈)을 위로해서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연행하는 천도굿을 가리킨다.

진도씻김굿은 이승에서 한을 풀지 못한 망자의 맺힌 원한을 풀어주어 망자가 극락왕생(極樂往生)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진도지역의 굿이다.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산 사람의 무사함을 기원하는 불교적 성격의 춤이나 음악의 요소가 많고, 뛰어난 예술적 요소가 많다. 지무가 상복차림으로 정성스럽게 비는 가운데, 춤과 노래가 유장한 음악과 함께 울리면서 망자와 후손이 접하는 특징이 있다.

태평무

국가무형문화재 제 92호로 지정되어 명가故강선영에서 보유자 양성옥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태평무는 당 대 최고의 명무이신 故한성준에 의해 구성되었다. 전래의 왕십리 당국에 특이한 무속장단을 바탕으로 경쾌하고 절도가 있어 우리 민속춤만의 정중동의 흥과 멋을 지니고 있다. 태평무가 어느시기부터 전승되었는지는 확실히 알수 없으나 문헌기록이나 구전으로 보아 약 100년전부터 추어 왔던 춤 임에는 틀림없다. 태평무의 내용은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뜻을 담고 있으며, 또한 위엄과 격조가 높으면서도 경쾌하고, 가볍고도 절도있게 돌아치는 발 디딤새가 특징이라 할수 있다. 음악은 경기 도당굿을 토대로 낙 궁, 터벌림, 섭채, 올림채, 도살풀이, 자진도살풀이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민속음악의 대표적인 가락과 장단 이 고루 어우러져 매우 독특하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왕대비 배승연 | 구자영 김명주 김예림 김혜민 남지윤
왕 박근형 | 서채원 안보경 양수옥 윤유정 장아영
왕비 백은애 | 전 송 한혜미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

PROGRAM



합동무 손병호 고우애 서은별 이극연 박서현 이시연
김윤상 임현정

사자 장제후 한창현 이수민 김균하

봉산탈춤 목중춤과 사자춤

사자와 목중의 솔로 춤부터 합동춤까지 뛰어난 춤사위를 감상할 수 있는 난장이 펼쳐진다. 목중이 승려의 신분을 파계하여 음주가무를 즐기며 흥에 겨워 풍류소리에 맞추어 차례로 나와 춤 자랑을 한다. 마지막 목중이 나와 먼저 춤을 추고나간 목중들을 불러내어 합동춤을 춘다. 파계승이 음주가무를 즐기자 사자들이 나와서 목중들을 벌한다. 목중들은 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자와 함께 합동춤을 추며 마무리된다.



황지목 이현규 김인수 박근형

한량무

옛부터 멋과 풍류를 즐기던 선비들의 춤으로서 선비의 고고한 인품과 삶을 표현한다. 흥을 안으로 삭히고 겉으로 드러냄을 자제하는 남성춤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고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 하리라...”



솔리스트 나애리

김예림 김명주 윤유정 안보경 백은애 이다빈 송예랑 임민경 유승혜
김초희 최하영 김상아 김태희 박서빈 정규선 정나린 정승원

부채춤

부채춤의 원작인 <김백봉부채춤>은 평안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1954년 김백봉에 의해 창작된 작품으로 한국 전통춤의 근현대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꽃피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춤이다.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면서부터 기존의 <부채춤>으로 통용되던 작품명을 <김백봉부채춤>으로 명명하고 보 유자 안병주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양손에 부채를 들고 그려내는 부드러운 곡선과 음양의 조화가 매력적인 <김백봉부채춤>의 형태적 특징은 중후함, 유연함, 탄력성을 들 수 있으며 한국적 정서가 깊게 묻어나는 독특한 예술미학적 기법등이 특징이다. 굵거리와 자진모리 장단으로 이루어진 반주음악은 흥겹고 경쾌한 리듬이 역동적인 춤사위로 창출되며 八字형과 之字形으로 태극선과 포물선상의 곡선을 만들어가는 부채사위의 기본적 구조는 자연의 이치를 근본으로 삼아 묘사된다.



사물판굿

쇠 김관형 김상훈 조민우
징 김윤상 한 건 이극연
장구 김태현 권진우 배민호
북 이진우 손병호 김 산
태평소 주재형

소고춤

무용센터 김인수

구자영 김혜민 서채원 전 송
한혜미 김서우 김상아 송예랑
임민경 정승원 정규선 박서빈

사물판굿 & 소고춤

관객의 흥을 풀어헤치고 모으며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할 사물놀이의 대표적인 판굿이 본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악기잡이들은 상모를, 쇠잡이는 부포를 돌리며 전반부에는 다양한 대형을 연출하고 후반부에는 개인 놀음을 진행함으로써 개인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게 된다. 판굿은 춤의 시각적 요소가 가장 강한 사물놀이 고유의 레퍼토리로서 최고 잡이들의 진정한 맛과 재미가 판굿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물놀이를 대표하는 공연이다. 입춤소고-전통춤의 기본적인 춤사위를 지니지만 구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형식 없이 내재적인 흥에 맞추어 자유자재로 추는 춤이다. 진유림의 특유한 춤사위로 짜여진 입춤은 묵직 하면서 멋스러운 맨손춤에 이어 소고춤의 자연스런 조화가 한층 더 흥을 돋우어 준다.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

PROFILES



한국예술종합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예술교육은 학문적인 영역에서 예술을 탐구하는 예술대학과 중세 이래 도제식 교육을 통하여 직업적 예술가를 양성하는 콘서바토리 형태의 예술학교가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통의 수용없이 대학에서 획일적인 예술교육을 수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학자, 교육자, 예술가의 구별이 없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평범한 예술인력만을 양산해왔다.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 직업적 예술가의 부족현상을 낳았고, 전문예술인이 되기를 원하는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보다 수준 높고 체계적인 교육기관을 찾아 해외유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예술교육에 대한 반성과 자각은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예술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이 학교가 새로운 교육방법, 세계 정상급의 교수진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춘 실기전문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졌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우리 예술계와 교육계의 염원에 부응하여 국내 최초로 음악,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예술 등 6개 분야의 예술실기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전통예술원 School of Korean Traditional Arts

전통예술원은 전통음악과 무용, 연희 중심의 전통예술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공연 역량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전통공연예술의 체계정립 · 미학적 규명 · 미래적 전망 등을 목표로 한 한국예술학과, 기악 · 성악으로 나뉘는 음악과, 궁중 · 민속무용과 같은 전통춤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춤을 모색하는 무용과, 각 지역의 무속 · 탈춤 · 풍물 등 지역 연희를 종합적으로 연마하는 연희과,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 작곡가의 양성함을 목표로 하는 한국음악작곡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 전통예술교육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토대로 효과적인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채택, 심도 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1 WED
7:30PM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해적

국립발레단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 <해적>을 ‘마젠토스의 왕’의 해설과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작품입니다. 해적 두목 콘라드와 메도라의 사랑, 해적단에 대한 비르반토의 배신, 콘라드와 알리 사이의 신의와 우애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국립발레단의 <해적>은 2020년 솔리스트 송정빈이 재안무한 버전으로 역동적인 군무와 화려한 테크닉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음악	아돌프 아당 외 Adolphe Adam and others
원안무	마리우스 프티파 Marius Petipa
재안무	송정빈 Song Jungbin
각색	정다영 Dayoung Jeong
작·편곡	김인규 Kim Inkyu
무대·의상	루이자 스피나텔리 Luisa Spinatelli
조명	고희선 Ko Heesun
출연	국립발레단 Korean National Ballet
단장 겸 예술감독	강수진 Kang Suejin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

PROGRAM



파도 위를 떠돌던 해적단은 마젠토스의 상선을 포착한다. 해적 두목 콘라드의 지휘 아래, 마젠토스의 노예무역선이 항복한다. 해적단의 이인자인 비르반토는 어차피 노예무역의 희생양이 되었을 사람들을 팔아 수익을 남기자고 주장하지만, 콘라드는 오히려 노예무역선의 함장을 처단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풀어준다. 이로써 알리는 자유를 되찾고 해적단의 형제가 된다. 무리가 늘어난 해적단은 기세등등하게 다시 돛을 펼친다.

해적단은 배를 정비하기 위해 우연히 발견한 섬에 정박한다. 그곳은 수확제 분위기가 달아오른 플로리아나. 해적들은 섬사람들 사이에 어우러져 춤추며 잠시나마 육지 위의 행복을 만끽한다. 콘라드는 메도라라는 한 소녀에게 한눈에 반한다. 메도라 역시 파도를 호령한다는 콘라드에게 매력을 느낀다.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의 꽃봉오리가 피어오르려는 찰나, 마젠토스의 왕이 플로리아나로 행차한다. 마젠토스의 왕은 노예무역을 잃어 생긴 손해를 메꾼다는 핑계로 플로리아나 사람들로부터 공물을 탈취하고, 메도라와 그의 친구들을 납치해간다. 이에 콘라드의 해적단은

메도라와 친구들을 구출하러 가기로 결의한다.

구출 작전에 성공한 해적단은 메도라와 친구들을 그들의 본거지인 해적섬 드라코노보로 데려온다. 해적섬의 모두가 메도라와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콘라드는 메도라에게 달콤한 사랑을 표하고, 알리는 해적단에 의리를 맹세한다.

한편, 부에 눈이 멀고, 알리와 콘라드의 우애를 시기하게 된 비르반토는 해적단을 배반하고 마젠토스의 왕과 한편이 된다. 비르반토는 마젠토스의 군사를 이끌고 해적섬을 침투한다. 비르반토가 잠입해 콘라드를 살해하려 하지만, 이를 간파한 알리가 콘라드의 목숨을 구한다. 콘라드는 비르반토에게 해적단 형제의 맹세를 상기시키고자 하지만 회유에 실패한다. 콘라드는 결국 배신자 비르반토를 향해 최후의 방아쇠를 당긴다.

배반의 쓰라림을 다독이는 양, 또다시 태양이 떠오른다. 콘라드의 해적단은 메도라, 알리와 함께 검은 돛을 펼치고 새로운 모험을 향해 나아간다.



PROFILES



국립발레단 Korean National Ballet

대한민국의 발레를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은 1962년에 창단된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과 함께 세계 유명 작품을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호두까기인형>, <백조의 호수>, <스파르타쿠스>, <라 바야데르>, 파트리스 바르의 <지젤>, 존 크랭코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마르시아 하이데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크리스티안 슈폭의 <안나 카레니나>, 조지 발란신의 <세레나데>와 <주얼스>, 지리 킬리안의 <Forgotten Land>와 <Sechs Tänze>, 우베 솔츠의 <교향곡 7번>, 글렌 테틀리의 <봄의 제전>, 프레데릭 애쉬튼의 <고집쟁이 딸>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해적>(2020년)과 <돈키호테>(2023년)를 국립발레단만의 버전으로 각색 및 재안무하며 전막 발레 레퍼토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국립발레단 고유의 창작 레퍼토리로 <왕자호동>, <허난설현-수월경화>, <호이 랑>이 있고, 2015년부터 시작한 'KNB Movement Series'로 신진 안무가 발굴 및 소품 레퍼토리 개발을 통한 창작 발레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국내에서 '찾아가는 발레이야기', '찾아가는 발레교실', '해설이 있는 발레'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립발레단은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발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레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기에, 콜롬비아, 캐나다, 홍콩, 아랍에미리트, 체코, 스위스, 독일, 일본에서 발레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며 활발한 문화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3년 5월에는 독일 비스바덴에서 매년 개최되는 'International May Festival'에 초청되어 국립발레단 버전의 <해적>을 공연함으로써 유럽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21년부터 시작된 공익사업 <꿈나무 교실>을 통해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발레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종료 후 배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립발레단의 무용수들과 함께 같은 무대에서 공연을 올리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저변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CONTENTS



EXHIBITION

2024.01.19^{FRI} ~ 02.01^{THU}

함께 할 때 빛나는 우리-아르브뤼특별전

.. 26

아르브뤼코리아 사회적협동조합

강릉아트센터 제1전시실

2024 Venez Illuminer Artpara!

.. 28

(사)장애인과오대륙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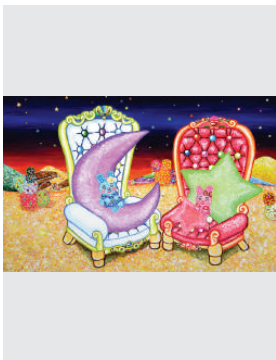
강릉아트센터 제2,3전시실

1.19^{FRI} ~ 2.1^{THU} 강릉아트센터 제1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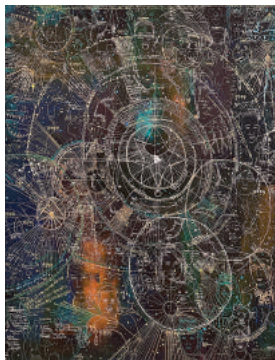
함께 할 때 빛나는 우리-아르브뤼특별전

아르브뤼코리아 사회적협동조합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 할 때 빛나는 우리”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슬로건과 함께, 성장속도는 다르지만 자신만의 내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성장하는 발달장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참여작가는 아르브뤼코리아 소속 성인 발달장애 작가 9명, 도와지 소속 발달장애 작가 8명, 밀알복지재단 발달장애작가 3명, 자립준비 청년과 아동양육시설보호아동의 자아존중감형성을 위한 전시연계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주식회사 아트지움 소속작가 14명, 장애 아동의 다양한 미술체험을 도모하는 김지수작업실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청소년 작가 10명, 그리고 특별초대 작가로 윤송아 배우겸 작가도 함께합니다. 전시기간 동안 발달장애작가들과 청소년 그리고 관객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전시연계프로그램도 열립니다.



금채민
별님달님 80.3x116.8
mixmedia on canvas 2022



정도운
별자리 속 숨은그림찾기
캔버스에 아크릴 2023



김기정
궁금해 53x45.5
캔버스에 아크릴 2023



이다래
숲 속의 정원 116.7x91cm
캔버스에 아크릴 2023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

전시 연계 프로그램

일정	강사	프로그램
1월 21일(일) 오전 11시	금채민 작가	클레이 아트
1월 22일(월) 오전 11시	정도운 작가	캐릭터 그리기
1월 23일(화) 오후 2시	임지영 대표	그림과 글이 만나는 예술교육
1월 24일(수) 오전 11시	김기정 작가	나만의 우산 만들기
1월 25일(목) 오전 11시	박태현 작가	캐릭터 인형 만들기
1월 26일(금) 오전 11시	최명은 작가	타투 스티커 만들기
1월 27일(토) 오전 11시	조영배 작가	사파리 꾸미기
1월 28일(일) 오전 11시	천민준 작가	엽서 만들기
1월 29일(월) 오전 11시	최서은 작가	목판화 체험
1월 30일(화) 오전 11시	권세진 작가	자동차 책갈피 만들기

신청 artbrutkorea@daum.net

참여작가

아르브뤼 코리아 작가	권세진 금채민 김기정 박태현 이다래 정도운 조영배 최명은 최서은
초대작가	박성호 손제형 신의현 천민준 김건우 양현빈 강원진 이도하 김성찬 최석원 윤인성
장애 어린이 청소년 작가	김건희 김준성 박승현 오현준 이예섭 인지원 장은서 정하운 한채린 임 율
자립준비청소년 작가	고우리 권수아 박유정 박초은 박하늘 박하은 박한별 서이현 송한비 안나연 유수아 이서현 이예슬 정연서
*특별초대 작가	윤송아(작가, 배우)

아르브뤼코리아 사회적협동조합

아르브뤼코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은 2019년 11월 발달장애 작가의 부모들이 설립하였고, 2020년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인 발달장애 작가들이 예술가로서 자립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은 현재 9명의 발달장애 작가와 부모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시지원, 작품 렌탈, 아트상품개발, 부모교육, 장애인식개선 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9^{FRI} ~ 2.1^{THU} 강릉아트센터 제2,3전시실

2024 Venez Illuminer Artpara!

(사)장애인과오대륙친구들

“ArtPara”는 Paralympic의 ‘Para-Olympic’은 평행(Parallel)에 그 근원이 시작됩니다. ‘패럴림픽 paralympic’의 ‘para’처럼 ‘나란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란히’ 각 나라와 나라가 ‘나란히’, 공존과 화합으로 여는 평화로운 미래라는 비전으로 발견과 만남, 연결과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발달장애화가들의 특별한 예술세계를 조망하는 정기적 국제교류의 장이 될 ‘아트파라(ArtPara)’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다섯 개의 대륙에서 발달장애화가들의 작품 100여점이 모아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전시가 구체화되는 매우 이례적인 큐레이팅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세계 5대륙이 모여 올림픽을 이루어진 것처럼, 이번 ArtPara 전시 또한 올림픽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같이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에는 대한민국 최초, 세계장애인의 날 UN본부 전시를 가진 작가 김근태의 삶이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 장애가 있는 김근태 작가는 1990년 목포 고하도의 장애인 시설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며 지적장애인을 평생의 작품의 화두로 삼게 되었습니다. 30년 넘는 작품 활동을 통하여 지적장애인 안에서 인간 본연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의 빛을 발견하였고,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더 넓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에 대한 비전이 자리하기 시작 했습니다.

(사)장애인과오대륙친구들은 지속적으로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 이전에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는 COVID19 등 유래 없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 인류의 행동에 대한 제약과 맞물려 이 시대를 살아 낼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다 인간 본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옆에 나란히- 함께 나누자’를 인류적 공공의 의제로 이번 ‘ArtPara’를 통하여 선포하는 바입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모여 큰 메시지를 담은 이 전시를 관람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인간 본연의 가치를 돌아보는 작은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Artpara”의 순회전

UNOG 전시

스위스 UNOG (2017.1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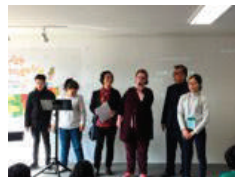
마이클 윌러
UNOG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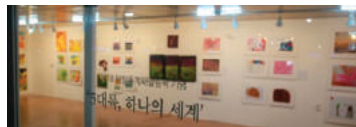
UNOG 전시풍경

평창 패럴림픽 기념전시

강릉 올림픽파크 (2018.3.9-18)



강릉 올림픽파크 오픈에 참석한
김근태 작가와 장애아동들



평창 패럴림픽 전시풍경

파리 유네스코 본부전시

파리 UNESCO (2018.4.9-18)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가운데)과
김근태 작가, 장애작가들 (좌에서 두번째와 다섯 번째)



유네스코 전시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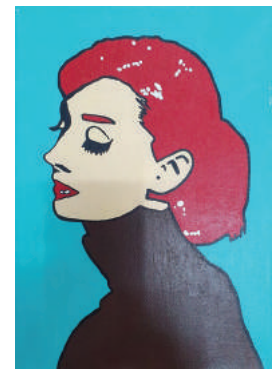
Dancing with Joy



Alexander Chwatal



House On A H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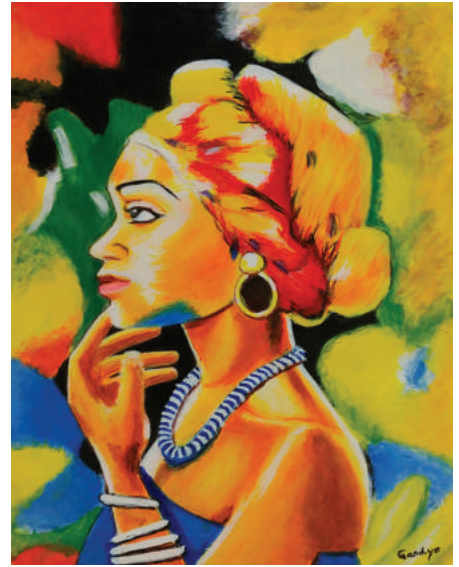


정순희_빨강머리 오드리헵번(24x33cm),
2023, Oil on canvas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



Fred Carlos Gandye_Sunset in the Coast (81×57cm), Acrylic on Canvas



Fred Carlos Gandye_여인의 꿈(58x79cm), 2022, Oil on Canvas



김근태 100m 사계 중 가을_희망(160x651cm), 2015, Oil on Canvas



김근태_칠득이(53x45.5cm), 2003, Oil on canvas

(사)장애인과오대륙친구들**“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불가능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인의 예술적, 창조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전시 사업과 국제 교류를 통해 장애인 예술가를 발굴, 양성하고 세계 중요한 곳곳에 전시기획을 하는 사회적 문화예술법인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5대륙 장애인 작가들을 발굴, 양성하여 국제미술교류를 확대하고, 발달장애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이야기하는 'ArtPara'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장애인과오대륙친구들이 만들어온 전시는

2015년 세계장애인의날 UN본부

2016년 세계순회전(독일 베를린장벽, OECD, 브라질 리우 패럴림픽 공식전시, 중국 마네의 초지 등)

2017년 세계장애인의날 제네바UN지부 전시(스위스 제네바 UN지부 1층)

2018년 유네스코 전시(파리 유네스코), 평창 패럴림픽 전시(강릉 라이브사이트)

2019년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전시, 부산 국제영화제 초대전시

2020년 5.18 40주년 기획전 '오월, 별이 된 들꽃'(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2년 광주비엔날레 1관 오대륙 화가 전시로써 5대륙 15개국 100여명의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세계 곳곳에 소개되었고, 전시된 곳마다 최고의 감동과 삶의 의미를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에 장애인 화가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졌고, 또 그 씨앗이 싹 틔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 화가들의 친구들이 되어, 더 깊은 감동과 의미가 있는 문화예술을 만들어나가는

(사)장애인과오대륙친구들의 의미있는 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념

강원 2024 문화예술공연

GANGWON 2024 CULTURE & ART FESTIVAL